

2011 Winter

Vol. **71**

희망미소

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NS인을 감동시킨 편지 한 통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

지난 8월, 우리 NS홈쇼핑 임직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전북 고창에 살고 계신 김진석 님으로부터 온 편지는 우리 모든 NS홈쇼핑 임직원의 가슴을 울리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준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진석 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 민진이가 재생불량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해결책이 없어 실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NS홈쇼핑이 정성껏 모은 후원금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었으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도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NS홈쇼핑은 2001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린이요양원, 노인복지관 후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녹색성장캠페인을 통한 자연 정화 활동과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김장 나눔 행사, 무료급식 도우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봉사와 후원의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도움을 받는 분들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김진석 님의 편지를 받고 우리 NS홈쇼핑 임직원들은, 더욱 힘을 내서 아들과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펴달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편지 한 통에서 귀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힘’입니다

“고모야, 롯데월드 빨리 가자. 왜 안가? 오늘 롯데월드랑 호텔 가기로 했잖아! 안가야하냐?”

“가야지, 그런데 놀이동산 이식 문 안 열었어. 싹고 준비해서 천천히 가던 도해.”

“일찍 가서 기다리면 안돼?”

“난새나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 힘들어.”

“그래도, 가자…….”

이 소리는 8살짜리 남자 아이 상욱이가 눈 비비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떼돈다고 느꼈겠지만, 오늘은 저도 빙그레 미소가 나네요.

드디어 도착한 놀이동산에서 아이는 조잘조잘 이야기 하며, 다함께 놀이기구를 같이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순간의 즐거움이 드러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무한한 즐거움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했는데 말이죠.

호수 위에서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파도타기’는 무섭다고 못 탄다는 걸 겨우 설득해서 타게 했기 때문에 기구를 타는 동안 내내 걱정을 했는데 우려와 달리 울지도 않고 내릴 때는 재미있었다며 신나게 뛰어갑니다. 역시 뭐든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점심을 먹다 발견한 오리배를 보고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빨리 타러 가자며 재촉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녁 퍼레이드까지 모두 관람하고 나서는 ‘고모야! 이제 빨리 호텔 가자. 정말 기대되는 걸.’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 기대에 차 보였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뛰어올라 폴짝 폴짝 뛰면서 ‘와, 좋다’를 연발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던 남편은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합니다.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 호텔 내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만 놀고 사우나에 가려고 했는데 상욱이가 물놀이를 어찌나 재미있어 하는지 자꾸만 더 놀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개인 수영장인 듯 온 사방에 물을 다 튀기며 물장구를 치며 물싸움을 합니다. 수영장을 나올 때쯤엔 그새 상욱이의 수영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람들한테 호텔수영장에서 수영 배웠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부잣집 아이인 줄 알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오후에는 미리 예약해 둔 호텔뷔페에서 상욱이가 너무나 먹고 싶어 하던 랍스터, 킹크랩, 갈비, 예쁜 디저트 등 맛있고 화려하기까지 한 귀한 음식들을 원없이 먹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자니,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금도 병원과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싶은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5살에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 진단을 받은 상욱이를 고모인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치료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엄마아빠도 없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준 상욱이가 너무나 대견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상욱이는 고모를 엄마 삼아, 고모부를 아빠 삼아, 우리는 상욱이를 아들삼아 다른 어떤 가족보다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행복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린 상욱이에게는 이번 여행이 행복한 추억으로만 남겠지만, 우리 부부는 추억뿐만 아니라, 진정한 도움과 봉사,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소아암 어린이 가족 파이팅!입니다.

* 상욱이는 2008년 신경모세포종으로 진단받고, 2010년 치료종결했습니다. *



나는 희망이다!



오유민

1992년생

2008년 1월 골육종 진단

2009년 5월 치료종결

현재 조선간호대학 간호과 1학년 재학 중

오랜만에 글을 써보려 하니 예전에 내가 치료받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 상처도 아물어 가면서, 제게 그 아팠던 기억도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졌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고 환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전 같았으면 '어쩌다 저랬대?' 하면서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겠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눈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내리던 해, 빙판길을 미끄럼 타듯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다리가 몹시 당기고 아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고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보다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짜증났던 철없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아팠던 골수검사에 놀라고, 머리가 없는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에 한 번 더 놀라고, 점점 내 인생이 꼬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암치료와 수술, 그리고 걷지 못해 타야 하는 휠체어,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저와 같은 진단명의 언니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팔에 종양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진단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치료를 마칠 즈음이었고, 나와 항암 스케줄이 달라 저와 엄마의 궁금증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치료 중 특이사항이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10개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면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조언도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 교수님께서 치료를 마치고 유학을 간 오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아, 나도 희망을 가져야겠다. 나도 다 나아서 공부하고 싶다. 앞으로 나와 같은 아이가 왔을 때, 교수님이 유민이 언니도 다 나아서 공부하고 있다 라고 말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에 갔을 때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말에 너무 충격이 커서, 휠체어에 앉아 주먹 쥐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수술 50%, 자기의지 50%라고 하셨던 말을 생각하며, 더 오기를 부리며 '내가 왜 못 걸어? 앞으로 보여줄 거야!' 라는 각오로 날마다 걷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난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되새기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되었지만 수술 후 1년 동안 수술부위가 잘 붙지 않아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이 치료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 모습에 우울해 했습니다.

재수술 날을 잡아놓고 저와 같은 진단명을 가진 5학년 꼬마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 같은 아이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해주고 싶었지만, 머리가 아작은 짧은 제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 부모님을 만나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고, 유민이도 이제 뼈만 붙으면 걸을 수 있다고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늘 불안한 모습의 아이 엄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걸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겨내야 할 일이 많은 그 아이와 가족이 힘내서 치료방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재수술 후에 저는 재활치료도 하지 않고, 스스로 운동해서 잘 걸어 다니며,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치료할 때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료 끝난 지 3년이 지나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께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받을 때는 물어볼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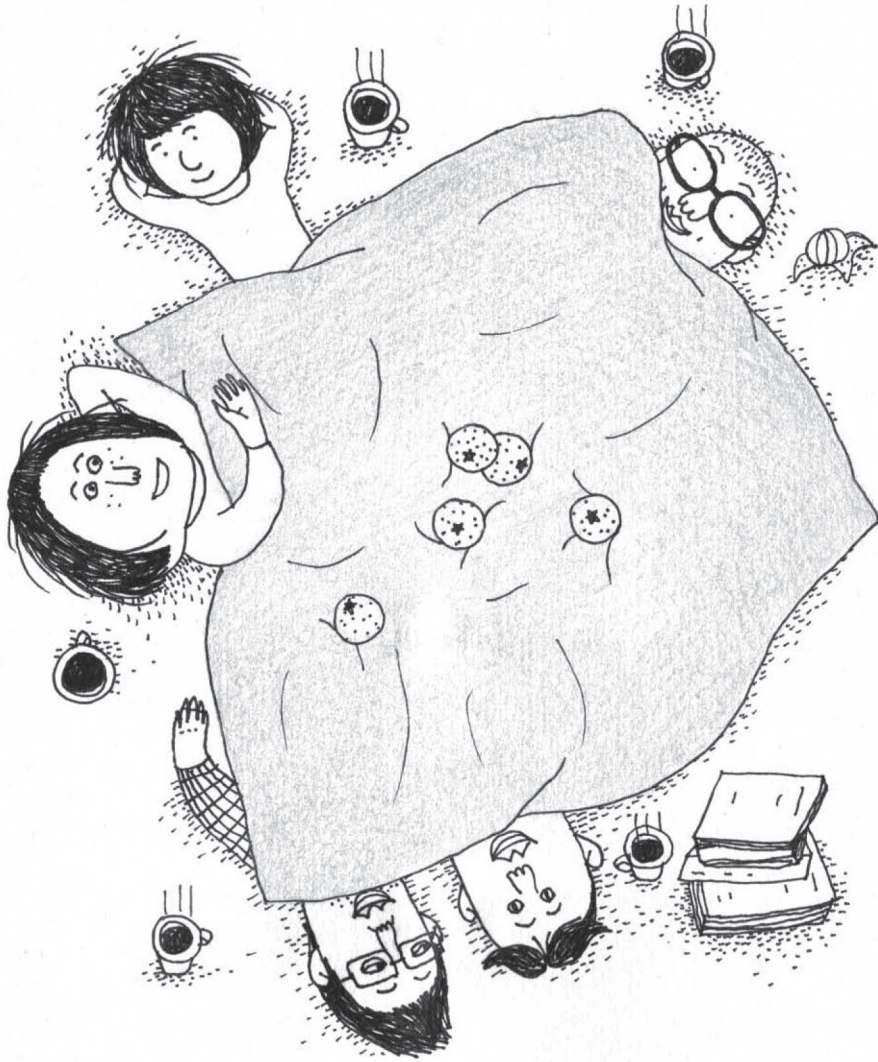
없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있는 그 분들이 한 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선화라는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화를 보면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화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제가 대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교수님은 제게 걸을 수 없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선화에게는 걸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에 차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진 때 교수님이 유민이 언니도 지금 걸어 다니니, 너도 용기 잃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늘 꿈꿔오던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에게 내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늘 마음 속에서 외쳐오던 '나는 희망이고 싶다.'가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화는 지금 항암치료도 잘 받고 있고, 덕분에 모든 게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으며 제게 너무 고맙습니다. 난 한 것이 없는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이란 건 진짜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전 때로는 아픈 것이 후회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느 한 편에서는 내가 아파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지니, 내 존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아픈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 줄 알기에,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너는 혼자자 아니니까 할 수 있다고!



겨울의 맛!

글. 그림 소복이



좋은 이별

출판사 : 푸른숲 / 저자 : 김형경



» 소개의 글

제대로 슬퍼하세요. 그래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다양한 이별을 맞닥뜨린다. 하지만 헤어짐 뒤에 오는 슬픔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아픔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 누구도 선뜻 '이별'을 화제로 꺼내지 않으며, 가급적 피해야 할 사건처럼 여긴다. 저자는 애도의 개념과 발전, 그리고 자신의 경험 종교와 신화, 문학 속에서 전해지는 인류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이별을 말하지 않는 문화를 지적하며, 이별 후 우리가 겪는 감정과 애도, 그리고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은 이별했지만 상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충격과 마비, 부정, 분노 등 돌아오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우리의 심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3장은 열정을 거두어오긴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이는 심리 및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은 열정을 자신의 회복과 변화를 이용해 사용하는 단계로, 상실의 고통을 충분히 겪고 난 후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슬퍼해야 다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별의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이별과 애도의 과정을 공유하고 표현하기를 권한다.

» 책의 내용

'취급주의' 상태임을 이해하기

상실의 충격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가 된다. 애도 기간 중에는 '취급주의' 표시가 붙은 특별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까지는 회복되고, 어떤 일들은 반성하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하고 등등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는다.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

슬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배려해 준다.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인사할 때 '괜찮다'는 의례적인 답을 건네지 말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여전히 좀 슬프다, 무거운 마음이 견디지 않는다 등등.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 형식적으로 질문한 후 솔직한 답변 앞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해 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화제를 바꾸면 된다.

신촌 한 복판에서 날개 달린 천사를 만나다!

신촌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2011년 10월 15일,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저녁 7시부터 90분가량 간단한 리셉션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이후 행사가 계속되었고 복권 추첨도 있었다. 이 복권의 수익금은 전액 쉼터에 기부되었다.

1인식 테이블 위에는 이번 전시회의 모티브가 됐던 재단의 안내문과 모금함이 놓여 있었고,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의 천장에 다양한 그림을 전시하였다. 로빈의 많은 한국인, 외국인 친구들이 특별한 의미가 갖든 오늘의 전시회를 찾아와 축하했다.

KCLF: 언제부터 한국에 오게 됐나요? 그리고 재단에 서 재능기부를 시작하지 얼마나 됐나요?

ROBIN: 한국에 상지는 7년 가까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매주 영어를 가르친 건 방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KCLF: 7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어떻게 재단을 알게 됐나요?

ROBIN: 워낙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마땅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로빈은 심층쉼터 근처에 산다) 쉼터에 있는 포스터를 봤어요. 사실 7년째 한국에 살아도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지만요.

KCLF: 그래도 낯선 한국어 포스터에 끌렸더니, 운명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림을 꾸준히 그렸고, 그 결과 오늘 당신만의 전시회를 열게 됐는데 이 전시회가 어떤 의미인가요?

ROBIN: 리플렛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전시회는 '금주를 위한 헌정(My tribute to sobriety)'이에요. 1년 전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술을 끊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술을 끊으니,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제 인생을 챙기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 관심 있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행복했어요. 오늘 전시회도, 이 전시회를 하기까지 만나운 모든 사람들도, 그 자체가 모두 행복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발 디딜 틈 없이 뻘뻘해진 전시회장을 예정보다 일찍 나섰다. 통로의 한 벽면에 장식된 천사의 날개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나의 급작스러운 요청에 흔쾌히 “그래요, 나도 천사, 당신도 천사, 우리 모두 천사예요. (Yes, I'm angel, you're angel, we're angel.)” 신촌 한 복판에서 나는 오늘 날개 달린 천사를 만났다.

* 재단 위대한 블로거 현지는 글 (blog.naver.com/fleurs8) *



만약 행복이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행복의 2g을 그 아이에게 나눠주고 싶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회화다 보니 미술교육 봉사를 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미술치료를 주로 했습니다. 일년 전에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은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걸으려고 보기에 이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봉사활동이지만, 이것을 시작하기까지 저에게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장소이자 13년 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하얀 형광등, 간호사 언니의 눈물, 70, 35, 17로 하락하는 맥박수, 기계의 굉음...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단편화된 날카로운 기억의 조각만 흐트러집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 한강다리를 건넜는데 그때마다 한강변에 서있는 병원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학에 가고 또, 사회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조금은 무뎠지만,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원이 보일 때면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작년 초 외할머니 간병을 할 때, 할머니 손끝과 기계의 접지상태가 좋지 않아 맥박수가 급격히 0부근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뇌 속까지 저릿저릿한 혼돈을 다시 겪은 후 생각했습니다. '난 아직도 16살의 그 기억과 감정에 머물러 있구나...' 물론 완전히 그런 기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벗어나고 싶지도 않지만, 봉인된 기억이란 호수에 내 몸을 완전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때인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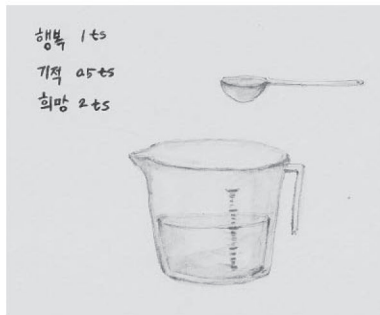
병원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와 '오늘은 보라색 꽃을 그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소아암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재단 대리

님의 맛있는 식사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원초적인 유혹에 유화붓이 아닌 페인트 붓을 들고 난생처음 「희망의 80%」라는 벽화도 그렸습니다. 고백컨데 저는 '이기지 못할 게임은 하지를 말자.'라는 신조를 갖고 살았거든요. 공부도, 연애도, 일도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될 만한 거에만 집중하는 편이라 실패는 적었지만 입맛만 다시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도 꽤 되었죠. 그런데 벽화시안을 짜고 피약벌에 온몸을 녹이며 여러 상황들과 부딪친 끝에 3번이나 벽화를 완성하고 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반추해 보았습니다. 내 평판과 승를 때문에 장애물을 넘고 득템하는 과정을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국어사전에 정의된 것 같이 순수하게 타인을 위한 마음만으로 봉사하기엔 전 너무도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난 오늘도 지하철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지하철 내 독서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쌍방적인 '나눔'이 아닌

단방적인 '봉사'라는 단어가 무지 탐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손에 페이스페인팅이란 꽃이 필 때, 제 마음에는 치유의 꽃이 필니다. 매달 5일, 15일 통장에서 후원금이 나갈 때, 제 마음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당위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트라우마'라 일컫는 힘든 기억의 방아쇠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겪은, 또 엄마와 같은 일을 겪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자양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 만에 머리가 빠져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시리고 눈에 이슬이 맺히는 건 아직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에게 계량컵 한 컵만큼의 행복이 있다면, 한 스푼 가득 떠서 그 아이의 컵에 털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한 스푼, 한 스푼이 모여 그 컵이 항상 채워져 있을 것 같아 바랍시다.



* 민수기 Fine art 작가는 후원자로 또 2010년 12월부터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www.kclcf.org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삼계탕 파티



9월 더운 여름의 끝자락, 그동안 고생한 한사랑의집 가족들을 위한 삼계탕파티가 옥상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아직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담장 밑에 돛자리를 펼쳤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담소를 나누며 먹는 삼계탕,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가족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사랑의집 가족들의 어느 여유로운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해피빈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뮤지컬 CATS



11월, 샤롯데시어터에 소아암 어린이 가족 53명이 모였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아주 화창한 날씨가 선물된 하루. 뮤지컬 'CATS' 배우들이 진짜 고양이처럼 연기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감탄했고, 최고의 공연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가 옆으로 오자,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기도 하고 꼬리를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지 궁금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남동발전(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환아모 자기돌봄 프로그램 나(娜)



지난 10월, 엄마들만의 특별한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닌, '나'만의 자유시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재미있는 신작 영화도 보고, 네일케어까지! 엄마들이 자신만의 쉽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동안 아이들은 '꿈나무 요리사'가 되어 피자과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선물할 예쁜 머리핀과 마음을 담은 편지도 준비하였습니다.

엄마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픈 아이'의 엄마가 된 후, 모든 일상의 중심에서 '내'가 잠시 비켜섰지만, 엄마들에게 이 날만큼은 온전한 '내'가 된 섬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의 어머니들! '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문화예술체험



지난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와 광주에서 문화예술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힘든 치료 중이지만,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날의 행복감으로 앞으로 남은 치료도 '파이팅!' 하며 잘 받기를 기대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www.kclcf.org

노랑리본 캠페인 www.hello-reborn.org



지난 9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지하철 역사에서 소아암 어린이 지원을 위한 '노랑리본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고, 노랑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랑리본 캠페인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아이들이 선물해 준 추수감사절



11월, 아이들의 재재 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한사랑의집 담장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리는 벨소리에 나가 보니, 아이들의 동그란 눈망울과 작은 고사리같은 손이 모여져 과일바구니를 전해줍니다. 아이들은 환복소리로 '맛있게 드세요~!'를 외칩니다. 해마다 깊은 가을, 한사랑의집 가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선물하는 대신 어린이집 꼬마 손님들입니다. 가을 오후, 꼬마손님들 때문에 마음 따뜻해졌습니다.

특별한 김장, 선순환의 시작

자녀의 소아암 치료를 마친 어머니들이 현재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준 특별한



김장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장을 담근 후, 쉼터 가족과 함께 수육도 나누어 먹고, 치료이야기도 함께 하는 공감백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기에 정성이 가득했고, 그래서 어느 김장보다 맛있게 담궈졌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은 신촌과 서울 한사랑의집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장을 맛본 어머니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우리 애 치료 끝나면,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순환의 시작이 되어준 정준 어머니, 찬민 어머니 그리고 희주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증권금융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소아암 어린이 대상 '미술치료'



부산 한사랑의집에서는 2011년 4월부터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소아암 투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여, 치료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돕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술치료 문의 : 051) 244-7677 *

아름다운 유산후원 '박금숙 기금'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자 딸 윤명주, 윤현주님이 재단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후원금은 '박금숙 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으로 치료 받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눔, 유산후원에 동참해 주신故박금숙님과 가족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삼성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2003년부터 정기연주회를 통한 모금 행사로 매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분들과 삼성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전달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에 경차를 전달하였습니다.

현규의 희망동전 기부

재단의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인 현규 가족이 현규 치료 시작부터 1,000일까지 모은 '희망동전'을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현규 가족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삼성SDS '사랑의 마라톤' 후원금 전달

11월 23일, 삼성SDS '사랑의 마라톤'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삼성SDS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1m 1원 마라톤' 행사를 통해 해마다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들의 맘과 열정이 담긴 후원금은 소아암 가족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금 전달

· (주)맥텍

(주)맥텍은 2010년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올 11월에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 (주)아비스타 사랑나눔회

아비스타의 사내 동호회인 '아비스타 사랑나눔회'는 2009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임직원 현혈 시, 일정 금액을 후원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1,375,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에스알닥트주식회사

에스알닥트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9월 7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배우 이동욱 공식 팬클럽 '하천욱'

배우 이동욱 공식 팬클럽 '하천욱'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및 아동복을 후원하였습니다.

· 이폴리움(누들앤부)

유아용 화장품 회사인 누들앤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누들앤부 상품의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누들앤부에 감사드립니다.

헌혈증 전달

· (주)넥슨

10월 12일, 넥슨의 헌혈증·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당일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과 치료비를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꾸준한 헌혈행사와 더불어 치료비 나눔까지 함께 한 넥슨에 감사드립니다.



· 리마트

9월 2일, 리마트의 헌혈증·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 50매와 임직원 급여 끝전 및 매칭그랜트로 모아진 기부금 또한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매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리마트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롯데마트

롯데마트 임직원은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롯데마트 전국 지점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 3,532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6회 소아암 어린이 제주체험 '푸른바다 희망충전'

지난 9월 20일~22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은 소아암 치료기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쳐있던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후원, 제주 신라호텔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사랑 문화체험

지난 9월 27일~28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함께하는 2011 한사랑 문화체험'이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0가족 162명이 참여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우정사업본부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1 나눔고리 캠페인

나눔고리 캠페인은 후원자가 다른 후원자를 추천하여 나의 나눔과 또 다른 나눔을 연결시키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이메일과 SMS로 나눔초대장을 발송하여 지인들에게 나눔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재단 홈페이지(www.kclf.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이식비	치료비	삼성SDS 임직원 일동 각 500만원
<p>(주)농수산홍쇼핑 1,000만원 유선홍(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p> <p>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각 1,000만원 문윤성(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이지현(골수이형성증/해운대백병원)</p> <p>(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각 2,000만원 김범수(만성육아종질형/삼성서울병원) 문시우(월름스종양/삼성서울병원) 박세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우지훈(신경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p> <p>홍명보장학재단 서지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p> <p>이식비 기금 김수복(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만원 이지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800만원</p>	<p>2008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김예원(유잉육종/국립암센터) 400만원</p> <p>2010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박세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984,893원 어트경자르길(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려대학교 안암병원) 3979,500원 오준석(재생불량빈혈/국립암센터) 1,500만원 이지현(골수이형성증/해운대백병원) 1,200만원</p> <p>(주)넥스 김민지(골육종/원자력병원) 800만원</p> <p>(주)농수산홍쇼핑 서강은(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800만원 장예은(결체조직성연골육종/원자력병원) 700만원</p> <p>(주)맥텍 고지원(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300만원 안지훈(골육종/원자력병원) 500만원</p> <p>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박지후(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만원</p>	<p>김홍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박준서(급성골수성백혈병/국립암센터) 배규남(연부조직육종/영남대학교의료원) 어트경자르길(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오해경(악성림프종/영남대학교의료원)</p> <p>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태형(중증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500만원 장지홍(췌장암/서울아산병원) 500만원 한혜원(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500만원</p> <p>우정사업본부 각 300만원 김건욱(뇌종양/국립암센터) 김민형(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홍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박세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서수빈(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 어트경자르길(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용욱(골수이형성증/서울아산병원) 임혜인(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차지현(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 한혜원(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허도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홍현별(골육종/단국대학교병원)</p>
재할치료비	<p>박금숙 기금 각 500만원 남성규(신신경교종/삼성서울병원) 하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p> <p>배재열 기금 홍현별(골육종/단국대학교병원) 100만원</p>	<p>(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김시현(생식세포종/국립암센터) 6,937,100원 김홍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300만원</p>

에트경지르길(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려대학교안암병원) 800만원
 정건(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300만원

토탈소프트뱅크

이윤석(뇌종양/부산대학교병원) 700만원
 이준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한국남동발전(주)

안소연(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300만원

치료비 기금

김성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300만원
 김수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300만원
 유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800만원
 장예은(결체조직연골육종/충북대학교병원) 3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주)농수산홈쇼핑

하승준(수모세포종/동아대학교의료원) 100만원

(주)맥텍 매월 20만원

고지원(재생골량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20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민지(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100만원

우정사업본부 각 100만원

김대환(비호지킨림프종/삼성서울병원)

김민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각 100만원

김술(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박세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서지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안지훈(골육종/원자력병원)
 오해령(악성림프종/영남대학교의료원)
 유승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용성(골육종/국립암센터)
 이재원(수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
 허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한혜원(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주식회사 크라이스아이앤씨
 김지현(악성림프종/세브란스병원) 150만원

하루백원이웃돕기회

이현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월 1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

고려정보통신 월 20만원

김민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기업은행노동조합 월 15만원

김현정(중증재생골량빈혈/서울성모병원)
 김효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양은총(급성림프모구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정아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현동주(림프육종/삼성서울병원)

(주)효성 연양공장 월 15만원

조영오(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코코인터내셔널 월 20만원

김범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김수연(형문근육종/대구가톨릭병원)
 채예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다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월 20만원

황희정(중증재생골량빈혈/서울성모병원)

SK이노베이션 SK루브리컨츠 월 20만원

김태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가발지원

하이모

강윤서(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
 김수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승주(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암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신규)

강나영	강선희	강수향	곽동준	구미숙	권진희	길영민	김경숙	김경아	김대연	김대현	김동현	김동훈	김미숙	김민성	김병근
김보경	김성은	김연옥	김영대	김영화	김왕문	김홍원	김은영	김인순	김일기	김재석	김정순	김정애	김지윤	김진성	김창석
김채영	김태훈	김태희	김현아	김현재	김현주	김현호	김형찬	김형철	김혜영	김혜정	김호범	김환준	노순광	노정용	노형준
류 성	류한상	마현준	박경아	박대영	박보름	박인철	박재신	박정민	박정욱	방서연	백정근	백종근	서은미	서지희	석점표
손성욱	손현진	신미영	신은주	신종락	안선영	안지은	안후영	양동명	양윤정	양혜림	어진석	엄기선	엄태식	오미선	오승민
오은애	유인주	윤영란	윤태영	이기성	이나연	이대영	이명락	이상민	이상윤	이상훈	이서원	이선영	이성학	이수정	이영옥
이윤정	이재두	이정숙	이홍주	이화연	인서윤	임경미	임순남	임영선	임진아	장근영	장문정	장성록	장소진	장수미	장우경
장은서	장태미	전영미	전혜진	정규남	정근혜	정미희	정욱환	정진미	정현지	조은주	조희원	조재형	조효정	지형구	진희석
채성자	채희주	최강준	최선희	최수영	최인경	최인수	최진영	최혜나	하정수	하정연	함재향	허수철	허은철	홍민정	홍선희
황인태	황하영														

일시후원

김미진 김민주 김병수 김영은 김진숙 김진영 김철중 류대현 민경호 박대성 박동순 박상범 박영화 박점숙 배명희 윤여승
 윤재필 이수정 이순형 이윤진 이진솔 이호진 임미경 임준서 정석홍 정윤희 천옥영 최인숙 최인철 최진완 한민서 한민섭
 홍학순 RobinGarrett 김명자무용단 봉사동아리청원 삼성서울병원참사랑회 서울성모병원어린이학교 유세아유이레 이지테크코리
 익명 청담

후원물품

공동모듬회 차량 김경숙 부식류 김정남 버섯 대신어린이집 과일 박솔 음료수 박수혜 굴 박찬중 생필품 쌀 삼성생명의도지점
 프로그램비 웅진코웨이 제습기 이동육팬클럽하천욱 의류 이은실 음료수 이지희 양념류 정은비 음료수 정종현 과일 정행임 휴지
 (주)신라호텔 상품권 최나윤 식기류 틴탑앨조팬사이트허니플로우 CD 하동건 과일 하소영 과일 한국남동발전 생필품,식품 한영창
 음료수 현사모 음료수 황해원 과일

헌혈증(매)

김용천(22) 김정남(4) 노순광(1) 박상욱(2) 서은혜(7) 장민병(68) 정동환(10) 정성(6) 정종인(50) 강원대학교봉사동아리청원(4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583) 그랜드코리아레저(74) 넥스(116) 동양파이낸셜(74) 롯데마트(3,532) 리바트(50) 태광산업(2)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6) 한국해양수산연수원(500) 익명(1)
 총 5,165매

2011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영수증 발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0일까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 내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방법 (2012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정보 → 후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에서 2011년 내역 선택

(2)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 발급 받으세요!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은 중단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I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同苦同樂' 속으로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분들과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17일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이었지만 행사 내내 따스함이 넘쳐흐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재단의 시작과 성장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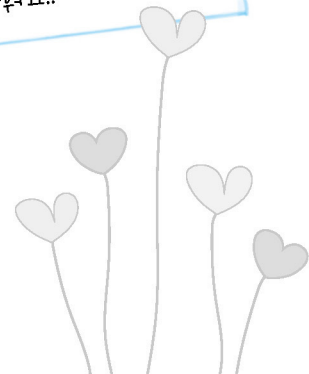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보내준 축하카드!
친구들, 고맙습니다!!



축하케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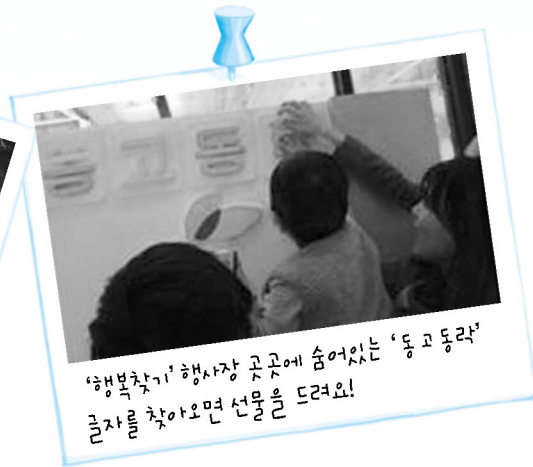
재단의 스무해를 한 눈에~



'나도 모델이다'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희망을 담아 노랑리본도 만들고,
희망메시지도 적었습니다.



'행복찾기' 행사장 곳곳에 숨어있는 '동고동락'
글자를 찾아오면 선물을 드려요!



드디어 본 행사 시작!
재단의 스무 해를 돌아보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환자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 분들의
축하케익 커팅과 미래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리고 기념 사이트를 통해서 재단에 축하와 함께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재단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되새깁니다. 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The하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기부자님이 함께하는 후원추천 캠페인입니다.

2011 후원 추천 캠페인 'The하기'

나의 좋은 이웃과 함께 나눔을 'The' 하세요!

'The' 하는 방법



1. **자랑하기** : 친구에게 기부하는 멋진 모습을 자랑하세요!
2. **보여주기** : 기부를 망설이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The하기'를 보여주세요!
3. **함께 즐기기** :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는 기쁨, 나눔의 행복을 즐기세요!



캠페인은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

2011년 겨울호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제작지원 하였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 / (02) 766-7671(대) 팩스 / (02) 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